

(광주 + 아프리카)

‘광프리카’ 시민들 폭염과의 전쟁

배달노동자·시민, 차가운 음료·그늘막 더위 달래
 이달 말까지 낮 최고기온 34~35도...31일 비소식



폭염경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주택에서 80대 노인이 선풍기 없는 방 안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청사에서 '양심양산 대여소'를 마련하고 있다.

“배달 1시간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미지근해져요.” 폭염특보가 22일째 이어진 28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동구청 오거리. 이날 낮 최고기온이 33.9도를 육박한 광주 도심은 불볕더위에 찰싹 끓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 보닛에 손을 대면 금방 화상을 입을 정도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쳤다. 광주 아프리카라는 ‘광프리카’가 실감나는 폭염이다.

배달기사들은 피약별과 지열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흡사 용광로처럼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태양의 위협에 나름 팔토시·긴바지·장갑으로 중무장했지만,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한 배달기사는 배달지에 도착한 뒤 숨 돌릴 새 없이 음료를 들고 건물 안으로 향했다. 배달기사가 내린 이륜차 안장과 조향 장치엔 땀 자국이 선명하다. 배달기사는 1~2분

만에 이륜차로 돌아와 얼음이 녹은 아메리카노를 벌컥 벌컥 들이켰다.

배달기사 장모(26)씨는 “이륜차에 얼음 가득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분을 섭취한다. 점심 1시간 동안 배달하면 금세 미지근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달기사 김모(42)씨도 “점심시간 배달 10건 중 2건을 마쳤는데, 이미 상의가 땀으로 흠뻑 젖었다”고 옷매무새를 고쳤다.

트럭에 복숭아를 싣고 파는 김모(50)씨도 차양막 없는 도로 한 복판에서 손님을 응대했다. 김씨는 “숨을 못 쉬 정도로 덥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점심 때만 장사하고 영업을 마칠 생각이다”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양산·부채로 그늘을 만들거나,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했다.

인도는 한산한 반면,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엔 시민들이 웅기종기 모이는 등 땀별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인근 정자엔 노인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 숨을 고르기도 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 더위 속 광주·자치구도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동구는 청사·동 행정복지센터·노인종합복지관 16곳에 ‘양심양산 대여소’를 마련했다. 광주 시민 누구나 장부에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최대 10일 동안 양산을 빌릴 수 있다. 대여소는 오는 9월30일까지 운영한다.

광주시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 1502곳을 설치했다. 쿨루프(햇빛 반사·옥상 열기 축적 감소 장치) 86곳, 쿨링포그(도심 열섬현상 저감 장치) 22곳을 설치했으나 쿨링 포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다.

또 5개 구청은 2억5000만원을 들여 살수차를 운영한다. 보도 온도를 낮춰 보행자 체감 더위를 낮추는 ‘쿨페이브먼트’ 사업도 추진한다. 폭염을 나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 서비스’도 주 1회 운영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34~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된다. 이달 31일, 다음 달 1~2일엔 비가 내려 더위가 한 풀 꺾이겠지만, 이후 다시 불볕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수습·경력기자 모집

“지역언론의 선봉장인 호남신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인원 : 수습·경력기자 0명
- ▶ 지원기간 : 채용시까지
- ▶ 지원자격 : 학력·나이제한 없음
-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부착)·자기소개서 각 1부
-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ihonam@naver.com)
- ▶ 접수처 :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문의전화 : 062-229-6000)



광주 신생아 출생, 전국 유일 5개월 연속 증가

통계청, 5월 지난해보다 13.1% 증가

올해 누계 출생아수 3451명...8.3% ↑

광주지역 신생아 출생아수가 올 들어 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유일하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밤(MOM) 편한 광주’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5월 출생아 수는 6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명, 비율로는 13.1% 증가했다. 올해 누계 출생아수는 34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265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2052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809명

(3.5%)이 감소한 상황에서 광주만 유일하게 연속 5개월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 처음으로 1만명 이하인 9105명으로 떨어졌고, 합계출산율도 1명 이하인 0.97명으로 감소하는 등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2019년 7월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밤(MOM) 편한 광주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 돌봄, 일·생활 균형 등 6개 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모든 출생이 존중받도록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임신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1주일새 250여명’ 3단계 격상에도 지속 발생 코로나19

광주·전남 20일째 두자릿수 확진세

광주·전남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음에도 연일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면서 1주일만에 신규 확진이 25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28일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16명, 전남이 7명으로, 지난 9일 이후 20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9일 23명을 시작으로 20~30명대를 유지하다 지난 14일 40명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20일 44명, 25일 46명, 27일 48명에 이어 이날도 반나절 만에 23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1주일새 245명이나 새로이 확진됐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백신 미접종 20~30대 사이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달중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곳곳에서 ‘방역 고삐’가 풀리면서 신규 확진세가 연일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외지 방문자의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는 등 책임있는 자율 방역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워킹레일

요양원 061) 395-2580
 주간보호 061) 394-0123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